

영어 시제와 시간 부사에 관한 연구

박 태 규
(전남전문대학)

Park, Taekyu. 1997. *The Semantic Relations between Tense and Time Adverb in English*. *Linguistics*, 5-1, 31-43.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some relations between the tenses and time adverb in English. In the traditional tense logic tense operators were treated as the functor expression of proposition syntactically, in this case it is very hard to describe the semantic difference of the event which appears in different times. Firs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we need to give the syntactic category to the tenses. That is, the tense is belong to the category of verb as a sentence operator. Second, we regard the tense as a sentence operator in COMP so that we can treat the auxiliary as a modal. Third, some sentence which contains a tense operator can not be analysed as a entailment, because the subject can go with two different verb with different tenses. Finally the tense of the verbs should be analysed as index, because the tense can have some time intervals. (Chonnam Junior College)

1. 서론

영어에서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 형식이 다양함은 물론이고 형식에 따른 의미 역시 대단히 상이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시제표현이 갖는 시간의 의미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술하는 일은 용이한 것이 아니다. Jespersen(1958)에 의하면 진행형이란 특정 시간이나 사건의 폭을 나타내는 시간의 구조(temporal frame)의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1) a. Mary was making coffee at three o'clock.
- b. Mary made coffee at three o'clock

(1)에서 보는 것처럼 부사구가 나타내는 시간과 진행형이 나타내는 시간사이에에는 대단히 상이한 관계가 있다. 우선 (1)의 두 문장에는 시간부사 at three o'clock가 들어있지만, 이들이 나타내는 시간관계는 서로 상이하다. (1)의 두 문장은 시제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다 과거이지만, 상의 입장에서 보면 (1a)는 진행상을 말하는 데 반해서 (1b)는 이러한 상적 의미를 갖지

않는다. 그럼에도 (1a)에서 커피를 끓이는 시간은 부사구가 나타내는 시간보다는 더 긴 시간을 나타낸다. 그런데 반해서 (1b)에서는 커피를 끓이는 시간과 부사구가 나타내는 시간이 일치한다. 이렇듯 부사구가 나타내는 시간은 동사구의 특성과 상이함을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Dowty(1979), Cresswell(1973), Cooper(1984)에 의하면 시간부사가 가리키는 시간의 영역속에 동사구가 나타내는 시간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동사구의 시제 속에 시간부사가 지시하는 시간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음을 보이고 있다.

- (2) a. John ran yesterday.
 b. YESTERDAY[PAST[run(j)]]
 c. PAST[YESTERDAY[run(j)]]

즉 (2a)의 의미표현은 (2b)와 (2c)와 같은 두가지의 의미표시가 가능하다. 그러나 (2b)와 (2c)는 (2a)에 대한 올바른 의미 기술이라고 할 수 없다. 어떤 문장 \emptyset 가 t' 에서 참이라면 t' 이 t 를 포함하는 시간보다 앞선 시간에 포함되 있어야 YESTERDAY가 지시하는 시간에서의 사건이 참이 된다.

만일에 시제 연산자가 시간을 나타낸다면 (2)는 John은 어제라는 시점보다는 빠른 다른 시점에서 달렸을 경우 참이 된다. 또한 (2b)는 John이 임의의 과거 순간보다 앞선 시간에 달렸다면 참이 될 것이다. 따라서 (2a)의 의미를 (2b)와 (2c)와 같이 기술하더라도 결국 동일한 의미기술이 될 것이다. 이렇듯 동사구가 지시하는 시간과 부사가 지시하는 시간이 동일한 경우라고 한다면, 어느 경우에 동사구가 지시하는 시간과 부사가 지시하는 시간의 동일함과 상이함을 갖느냐를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3) *John came tomorrow.

(3)이 비문법적이라는 것은 동사 came이 나타내는 시간과 부사 tomorrow가 나타내는 시간 사이의 충돌에서 비롯된다. 즉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부사가 과거를 나타내는 동사구 속에 들어있지 않아야 한다. (3)이 비문법성은 tomorrow, next week, next year와 같은 미래 시제를 갖는 요소들은 단순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와 함께 쓰여야 한다. 그러나 yesterday, last week, last year와 같은 시간부사들은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시제와 함께 쓰여야 한다.

이와 같이 동사의 시제와 관련이 있는 부사도 있지만, 발화시에 따라 시간부사가 미래나 현재, 또는 과거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4) John met Mary in 1996.

(4)는 1997년에 발화된 내용이라면 문법적일 수 있으나 1990년에 발화했다면 문법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시간부사는 그 자체로서 시간의 범주를 갖는 것이 아니라 동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시제와 시간부사는 일치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시간부사와 시제 사이에 일치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형식 의미론의 틀 속에서 시간부사가 나타내는 시간과 동사가 나타내는 시간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이들의 관계는 진리조건적 명제간의 관계가 아니라 어휘 간의 함축(implicature) 관계로 기술되어야 함을 보이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 시제의 문법적 위치

시제의 범주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시제가 동사적 요소이나 아니면 문장 요소이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흔히 현재시는 모든 문장이 갖는 기본적 시제로 간주하여 왔다.

(5) a. $[\emptyset]^{c,w,t} = 1$

b. $[\emptyset]^{c,w,t} = 1$ iff $[\emptyset]^{c,w,t} = 1$ for some t' such that $t < t'$

c. $[\emptyset]^{c,w,t} = 1$ iff $[\emptyset]^{c,w,t} = 1$ for some t' such that $t < t'$

(5)에서 보는 것처럼 (5a)는 시제가 없는 문장의 의미를 나타내고 (5b)는 과거 시제와 함께 쓰인 경우의 의미를 나타내고, (5c)는 미래 시제와 함께 쓰인 경우의 의미를 나타낸다.

이러한 시제에 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시제는 오직 동사에 의하여 표시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시제 형태소는 동사에 부가되는 의존적 형태소로 간주할 수 있다.

(6) a. walk- ed

b. 보- 았-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시제는 자유 형태소로 나타나기도 한다. 자유형태소로 쓰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제는 동사의 영역 내에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시제형태소와 동사간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사적으로 시제의 범주의 위치는 문장의 수준에서 파악되고 있다.

- (7) a. S → NP Aux V
- b. Aux → tense modal

즉 (7)에서 보는 것처럼 시제는 S에 의하여 지배되는 Aux의 하위범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Pullum and Wilson(1977)에 의하면 시제는 Aux의 하위범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Pullum and Wilson에서는 시제는 X-bar 구문론의 입장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통사구조의 COMP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8) S' → COMP S

시제가 COMP내에 들어있다면, S의 동사는 과거나 현재형태로 나타나고, 만일 시제가 COMP 속에 없다면 동사는 시제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시제가 COMP내에 들어있다면 이른바 조동사가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와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의 구별이 불분명해진다. 예컨대 will은 시제 형태소가 아니라 내용을 가진 동사로 간주하고 있다면 시제는 동사구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 COMP에 들어있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제는 동사와 자매관계의 범주가 아니라 문장과 자매범주를 갖는다. Montague(1974) 역시 시제는 문장 연산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매립문이 없는 단순문에는 하나의 시제만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런데 반해서 Bach(1979)에 의하면 시제를 문장 연산자로 간주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장의 시제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 (9) Tom went out but will be back shortly.
- (10) John is a good boy now, but was a terror until last year.
- (11) Mary has seen this painting and will not see it again.

(9)-(11)의 문장들은 동사구의 결합구조를 갖는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동사구 복합구조는 원래 두 개의 복합문으로부터 하나의 주어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만일 이러한 접속 생략에 의하여 형성된 문장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주어가 동시에 서로 다른 시점에 놓인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주부와 술부의 결합에 있어서 두개의 서로 다른 시제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즉 (9)-(11)의 표현에는 하나의 행위자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점

이 위치한다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동사가 나타내는 시간은 문장연산자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3. 시제와 시간 부사

시제는 동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한 문장에 시간부사와 동사가 나타내는 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문제가 노정된다. 이러한 시간부사와 시제의 불일치에 관한 논의는 Dowty (1979, 1980)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12) John ran yesterday.

전통적으로 (12)와 같은 경우에 동사가 나타내는 시간과 부사 yesterday가 나타내는 시간 사이에 일치가 일어남으로 시간의 입장에서 보면 동사가 나타내는 시간과 부사가 나타내는 시간은 잉여적이다. (12)에서는 John이 달리는 시간이 yesterday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는 잉여적이다. 그러므로 시제와 시간부사를 분리하여 기술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yesterday와는 달리 on thursday와 같은 시간부사는 과거 현재, 미래 시제와 함께 쓰일 수 있다. 이 경우 시간부사가 나타내는 시간과 동사구가 나타내는 시간 사이에는 두 시간이 같을 수도 있고, 어느 시간의 다른 시간 속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듯 시제와 시간부사는 하나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제 속에 시간부사가 삽입된 것으로 간주한다.

우선 동사가 나타내는 시간과 부사구가 나타내는 시간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사건은 문장에 의하여 표시되지만, 부사구가 사건의 술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다.

(13) a. John moved the carter, but it wasn't with a truck .

b. John moved the carter; Mary says it was to the house

c. John moved the carter to the house. it was on monday.

위에서 보는 것처럼 (13a)의 with a truck과 같은 부사구는 실제로 사건 it에 대한 논항이 된다. 뿐만 아니라 (13c)에서 보는 것처럼 on Monday와 같은 부사구 역시 사건(예컨대 앞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에 대한 술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동사가 나타내는 시간과 부사구가 나타내는 시간 사이에는 동일한 관계에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동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를 살펴보자. 만일 동사만이 시간을 나타낸다면 한 문장이 다른 문장을 함의하는 관계를 기술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시제를 표시하지 아니한 논리식으로 주어진 문장의 의미를 표시해보자.

- (14) a. John moved the carter to the house
- b. John moved the carter with the her .
- c. John moved the carter.
- (15) a. Move(j, c, h)
- b. Move.(j, c, h)
- c. Move(j, c)

(14)의 각각의 의미를 (15)와 같은 논리식으로 표시한다면 (15)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의 술어는 독립적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15a)와 (15b)의 move는 3항술어인데 반해서 (15c)의 move는 2항 술어이다. 따라서 (14a)와 (14c) 사이의 의미적 상관관계를 기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노정된다.

그러나 이들 시간부사가 양화의미와 결합될 경우에는 더욱 복잡한 문제가 노정된다.

- (16) Every boot was polished.

Cresswell(1977)에 의하면 (16)의 의미는 화역에 있는 “모든 구두가 동일한 시간에 닦여진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전칭양화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구의 의미는 개체를 논항으로 취하는 명제 표현의 집합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 (17) $B(a) \wedge B(b) \wedge B(c) \wedge B(d) \wedge \dots \wedge B(n)$

(16)의 의미는 (17)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구두가 닦여지는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a라는 구두가 닦여지는 시간과 b라는 구두가 닦여지는 시간은 동일할 수 없다. 따라서 동사만이 시간을 나타낸다면 (17)의 문법성을 설명하기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들 각각의 구두가 닦여지는 시간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고려할 때 이 집합이 구두가 닦여지는 시간으로 간주한다면 시간은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시점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점구조

를 인정한다면 시간부사가 나타내는 시간은 물론이고 동사가 나타내는 시간을 일관성있게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 부사가 나타내는 사건이나 동사에 의하여 나타내는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방안이 요구된다.

$$(18)a. \exists e (\text{move}(j,c,e) \wedge \text{To}(s,c) \wedge \text{with}(f,e))$$

그러나 문제는 부사구 자체가 사건의 서술적 표현이 되느냐는 것이다. 사건의 함의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은 시간부사구 뿐만 아니라 전치사에 의하여 서술적 표현이 가능하기도 하다.

$$(19) a. \text{There was a moving, and it was of the carter and it was by John.}$$

$$b. \exists e(\text{move}(e) \wedge \text{of}(c,e) \wedge \text{by}(j,e))$$

(19)에서 보는 것처럼 사건과 사물 사이에는 전치사 of나 by에 의하여 함수 논항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보았던 부사구가 명제에 대한 함수 논항관계를 이루는 것과 동일하다. 보다 구체적인 방법은 함수 논항관계를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20) a. \text{John moved the carter to the house.}$$

$$b. \exists e \exists t(\text{Past}(t) \wedge \text{at}(e,t) \wedge \text{John move the carter to the house}(e))$$

(20)의 의미표시는 시간 부사구를 포함한 전치사구를 사건에 대한 술어가 아닌 시간에 대한 술어로 간주한 것이다. 따라서 시제 역시 시간에 대한 술어로 간주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시제는 연산자라기 보다는 부사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4. 추상 시제 연산자

자연언어의 의미를 다루기 위해서는 연산자들의 기능이 밝혀져야 한다. P는 과거 시제 연산자이고, F는 미래시제 연산자라고 한다면 문장으로부터 새로운 문장을 유도하는 데는 시제가 문장 연산자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문장에 적용되는 규칙과 의미 해석에 적용되는 규칙이 서로 상이하다면, 표현과 의미의 유기적 관계를 기술하기 곤란할 것이다. 따라서 문장형성 규칙과 의미 해석 규칙 사이에는 서로 동일구조를 갖는 규칙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언어의 통사론과 형태론이 의미 규칙과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미 기술의 가능성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시제 연산자 F와 P외에도 다른 연산자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 중의 하나가 다음에 제시할 의미해석 규칙이다.

- (21) $F_a\emptyset$ is true iff $\emptyset \wedge F\emptyset$ is true.
- $F_0\emptyset$ is true iff $\emptyset \vee F\emptyset$ is true.
- $P_a\emptyset$ is true iff $\emptyset \wedge P\emptyset$ is true.
- $P_0\emptyset$ is true iff $\emptyset \vee P\emptyset$ is true.
- $G_a\emptyset$ is true iff $\emptyset \wedge G\emptyset$ is true.
- $G_0\emptyset$ is true iff $\emptyset \vee G\emptyset$ is true.
- $E\emptyset$ is true iff $G\emptyset \wedge H\emptyset$ is true.

(21)에서 F는 미래를 나타내는 연산자이고, P는 과거, 그리고 G는 미래와 완료가 결합된 시제 연산자이며, G는 "it will always be the case that"라는 항구적 미래 시제 연산자이고, H는 "it has always been the case that"의 영구적 현재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시제 연산자이다. 물론 이들 (21)의 연산자들이 자연언어의 표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들 연산자를 추상 연산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제 연산자에 의하여 (22)의 의미는 (24)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 (22) Every member of our committee will buy a house.
- (23) $\forall x[F_0 \text{ member}(x) \rightarrow F \text{ buy-house}(x)]$

(22)의 의미를 (23)와 같이 기술할 경우, 그 의미는 현재 회원인 모든 사람들과 또는 미래에 회원이 될 모든 사람들은 일정한 미래 시점 어딘가에서 집을 산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논의가 타당하다는 것은 다음의 예에서도 볼 수 있다.

- (24) Every senior will have met a president.
- (25) $\forall x[\text{senior}(x) \rightarrow F\exists y[a \text{ president}(y) \& P \text{ meet}(x,y)]]$

(24)의 의미를 (2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은 y가 언제 대통령이 될 지라도 (25)는 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추상 연산자를 도입할 때에만 (22)의 의미는 물론이고, (24)의 의미를 바르게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추상 시제연산자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22)와 (24)의 각각의 의미

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 (26) a. $\forall x[\text{Member}(x) \rightarrow \exists y[\text{House}(y) \wedge \text{Buy}(x,y)]]$
 b. $\forall x[\text{Senior}(x) \rightarrow \exists y[\text{President}(y) \wedge \text{Meet}(x,y)]]$

(23)과 (25)에서 보는 것처럼 미래의 주택이나 미래의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6)에서 보는 것처럼 현재에 주택이 존재하고, 또한 대통령도 현재에 존재하는 대통령이 된다. 따라서 종래의 술어논리 체계나 시제논리 체계를 도입할 경우에는 행위의 미래시점을 나타낼 수 있지만, 명사구가 함축하고 있는 미래적 의미를 기술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부사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동사가 나타내는 시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상 시제 연산자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 (27) a. John walked to the park
 b. John walked for a while.

(27)에는 서로 다른 전치사구가 들어있다는 사실 외에는 두 문장의 동사가 나타내는 시제는 동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7a)에서는 John이 공원쪽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지만, 접근해가고 있는 행위는 공원이라는 목표점에 국한된 행위일 뿐이다. 그러나 동일한 동사라고 할지라도 (27b)에서는 사건의 과정이나 결과가 제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건이 비한정적이다.

이상과 같은 행위의 제한성과 비제한성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추상 시제 연산자의외에도 행위의 한정성이나 비한정성을 설명하기 위한 지표적 시간 연산자가 필요하다.

5. 지표적 시제 연산자

앞에서 보아온 행위의 한정성과 비한정성은 시간의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지속의 의미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시점을 지표로 나타내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컨대 과서를 나타내는 시제 연산자라 할지라도 이들 시제 연산자의 행위의 선행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 (28) $\| \text{PAST}_0 \| = \text{ind}(\text{PAST}_0)$ if for every $t \in \text{ind}(\text{PAST}_0)$, $t < t_c$

따라서 간격이 발화시간에 앞선다는 점에서 모든 시간이라는 조건으로 PAST₀은 문맥에 의하여 구체화 될 수 있다.

- (29) a. John played the from ten to eleven.
- b. John was aplaying the piano from ten to eleven.

특히 같은 시제라 할지라도 진행형과 비진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시간의 문제가 상이함을 볼 수 있다. 예컨대 (29a)에서는 10시~11시라는 시간이 전체 상황을 말해주는 경우로써, 그 행위가 한시간동안 지속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29b)에서는 John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시간과 끝낸 시간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피아노를 치는 행위는 적어도 한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동안의 행위임을 말해준다. 이러한 행위의 장단은 시제 기술에 있어서 지표적 관계가 없이는 두 행위의 일시적 과거와 지속적 과거의 의미를 기술할 방안이 없게 된다.

특히 완료적 의미를 갖는 동사의 과거시제 가운데 시간구조를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순간의 사건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시간의 문제를 기술하는데 문제점을 논의해보자.

- (30) a. Just as Mary read the note the meeting ended.
- b. As soon as Mary read the note the doorbell rang.
- c. The moment Mary read the note the kids arrived.

Just as나 as soon as, 그리고 the moment와 같은 표현들의 시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충해주고 있는 표현이 Mary read the note라고 할 수 있다. 부사절이 나타내고 있는 순간은 사건이 완결된 순간이 아니다. 따라서 (30)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쓰면 비문법적이거나 수용하기 어려운 표현이 된다.

- (31) a. *Just as Mary read the paper the meeting ended.
- b. *As soon as Mary read the paper the doorbell rang.
- c. *The moment Mary read the paper the kids arrived.
- (32) a. Just as John got out of real estate the marker slumped.
- b. As soon as John got out of real estate the market slumped.
- c. The moment John got out of real estate the market slumped.

간단한 쪽지를 읽는 행위와 논문을 읽는 행위가 같을 수는 없다. 바꾸어 말하면 쪽지를 읽는 행위는 순간에 일어날 수 있지만, 논문을 읽는 행위는

단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행위이다. 또한 부동산을 처분하겠다는 행위 역시 논문을 읽는 것처럼 순간의 행위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과거시를 나타내는 read와 같은 동사라 할지라도 문맥에 따라 행위의 지속과 행위의 일시적 완성(punctual)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다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보다 명시적인 시간을 순간의 집합으로 간주하고 이들 원소들을 지표로 나타내는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28)에서 제시한 지표적 표시에 의하여 (30a)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33) a. Just as Mary read the note the meeting ended.
 b. As soon as Mary read the note the doorbell rang.
 (34) a. For every $t \in \text{ind}(\text{PAST}_0)$, $t < t_c$, $\exists e(\text{Read}(m,n),e) = \exists f(\text{end}(m), f)$.
 b. For every $t \in \text{ind}(\text{PAST}_0)$, $t < t_c$, $\exists e(\text{Read}(m,n),e) = \exists f(\text{ring}(d), f)$.

즉 (33a)와 (33b)의 의미는 각각 (34a), (34b)와 같이 표시할 수 있을 때 사건 e와 사건 f가 동일함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지표적 의미를 도입함으로써, 하나의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문맥에 따라 사건의 시간이 다름을 기술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지표적 시점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35) a. John loved Mary.
 b. John loved Mary from t_1 to t_2 means that at any instant between t_1 and t_2 John loved that person.

(35)에서 말하는 t_1 이나 t_2 와 같은 같은 요소를 시점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시점의 지표로 간주한 것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t_1\|$ 이나 $\|t_2\|$ 와 같은 요소는 개체를 함수로 갖는 표현임으로, 두 지표사이에 동일한 개체 함수를 갖는 경우이다. 즉 하나의 개체가 두 시점이 지표를 갖는 경우로 간주한 것이다.

6. 결론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하여 영어의 동사가 나타내는 시간과 시간 부사가 나타내는 시간의 상호관계를 시제라는 문법범주의 입장에서 고찰하였다. 우선 동사구가 지시하는 시간과 부사가 지시하는 시간이 동일한 경우라고 한다면, 어느 경우에 동사구가 지시하는 시간과 부사가 지시하는 시간의

동일함과 상이함을 갖느냐를 살펴보았다. 둘째, 이러한 시간의 동일성과 상이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제의 통사적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 시제는 일차적으로 조동사의 하위범주로 생각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으로써, 시제는 무장 연산자로 간주하였다. 셋째, 시제가 COMP 안에 들어있다면 이른바 조동사가 양상을 나타내는 경우와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의 구별이 불분명해지므로, 동사구 속에 들어있는 요소라고 규정할 수 있다. 넷째, 시제가 동사구 내에 들어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제의 논항은 동사가 나타내는 시점이 아니라 시점의 집합이라고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시제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 상호 함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면, 하나의 주어에 대해서 두가지 서로 다른 시제를 갖는 술어가 쓰이는 경우의 문제점을 기술할 수 없기 때문에, 시제는 함축으로 간주하여야 함을 보았다. 다섯째, 하나의 표현이 갖는 행위의 지속성과 순간성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시제 연산자를 보다 세분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 과거, 미래라는 단순한 시점 분류에 의해서는 행위의 지속성을 기술하기 위해서는 추상적인 시제 연산자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보았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시제라 할지라도 행위의 폭을 가진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지표적으로 기술하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시제의 범주설정과 시제의 분류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해결해야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남어지 문제는 논제를 달리하여 보다 구체적인 현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제 접근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서중채. 1991. 영어 부사의 통사. 의미적 특성. 박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이기용. 1976. "Syntax and Semantics of Prenominal Negation in the Framework of Montague Grammar," 언어, 1-2.
 이영현. 1984. 양화사의 의미표시와 해석. 서울: 한신문화사.
 이영현. 1995. 기초 형식의미론. 서울: 한신 문화사.
 이익환. 1984. 현대 의미론. 서울: 민음사.
 Bach, E. 1979. "Tense and Aspects as Functions on Verb-phrases," Presented at the Stuttgart Conference on Tense and Aspect..
 Comrie, B. 1976.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Cooper, R. 1984. *Quantification and Syntactic Theory*. Dordrecht: Reidel.
- Cresswell, M. 1973. *Logic and Languages*. London: Methuen and Co. Ltd.
- Cresswell, M. 1977. "Interval Semantics and Logical Words," in Rohrer, ed., *On the Logical Analysis of Tense and Aspect*. Tübingen: TBL Verlag Gunter Narr.
- Dowty, D. 1978. "Governed Transformation as Lexical Rules in a Montage Grammar," *Linguistic Inquiry* 9.
- Dowty, D. 1979. "Toward a semantic analysis of verb aspects and the English imperfective paradox," *Linguistics and Philosophy* 1.
- Dowty, D. 1980. "Tense, Time Adverbs and Compositional Syntactic-Semantic Theory," Paper presented at the Fourth Groningen Round Table on Auxiliaries.
- Jespersen, O. 1958. *The Philosophy of Grammar*.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Montague, R. 1974. "The proper treatment of quantification in ordinary English," in R. Thomason. *Formal Philosoph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Pullum, G. and D. Wilson. 1977. "Autonomous Syntax and the Analysis of Auxiliaries," *Language* 53.
- ter Neulen, A. 1985. "Progressive without possible world," *CLS* 21.

박 태 규
전남전문대학